

교회를 떠나는 시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오늘도,
작은 교회가
시작됩니다.

목표

1. 건물 구하기
2. 성도 모으기
3. 물류센터...

4. ...

스크린라이프 페이크 다큐멘터리

송목사의 개척일기

제작 : 2LEPTON

송목사의 개척일기

Ssong's Diary

왜 개척을 할까?

전국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담았습니다.

“교인이 무슨 매출이에요?”

대형교회 교역자 회의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묻고, 그 자리에서 개척을 선언한 송도윤 목사(35). 장애인 성도들과 ‘가족 같은 교회’를 하겠다며 퇴직금과 적금을 합친 1,800만 원으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예배당이 없어 예배는 원룸 노트북 앞에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노회의 개척 지원금 3,000만 원을 받으려면 100일 안에 정기예배 출석 30명을 채워야 합니다. 1층 예배당 급매, 유튜브 출연, ‘출석 30명 보장’을 약속하는 연구소까지.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말자던 그가, 어느새 그 숫자에 매달립니다.

돈도 예배당도 없고 생활비 통장에 37,400원이 남은 날, 그는 물류센터 야간 일에 지원합니다.

D+100, 노회 화상심사. “송 목사님, 출석 교인 34명, 맞습니까?” 그가 입을 여는 순간 화면이 멈추고, 이야기는 100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형식	스크린라이프 페이크 다큐멘터리
분량	장편 약 80분 (예정)
완성	2027년 3월
첫 상영	2027년 봄 특별 시사회



SCAN · 영화 페이지

2lepton.com

예고편과 상영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이곳에서 안내합니다.